

## 연등회 발우공양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연등회와 발우공양, 사찰 권역 등 한국불교의 전통 유·무형 유산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1월 25일 "연등회와 발우공양을 비롯해 한양도성, 용산 미군기지 등 총 8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건의 아이템을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3분야로 나눠 등재를 추진 중이다.

연등회와 발우공양은 인류무형유산 분야에 포함됐으며, 세계문화유산 분야에 △풍납·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 중심의 한성백제유적 △동관왕묘 중심의 전국 소재 관우 관련 신앙공간 △덕수궁 등 대한제국 시기 정통 근대유산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기록유산에는 △동여도 등 한국 고지도 △KBS 이산가족찾기 관련 기록물을 넣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문화재청도 연등회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 목록에 올린 바 있고 조계종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불교의 식사 의례인 발우공양은 평등, 절제, 공동체, 생명존중사상



서울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키로 한 연등회(사진 왼쪽)와 발우공양(사진 오른쪽). 문화재청도 한국 전통산사 7곳을 세계문화유산 잠정 등재 목록에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 발표... 한양도성 등 총 8건 진행 문화재청 '한국 전통산사' 잠정등재 목록으로 신청 "한국불교문화 알리는 기회 국민적 역량 모아야"

을 담고 있어 오늘날 전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청빈, 소박함, 친환경 요소를 갖췄다는 점에서 인류무형유산의 자격을 갖췄다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오문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무관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각 1억원씩 예산이 배정됐으며 장기적인 동력을 위해 자문을 지속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특히 연등회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대형 전통축제인만큼 등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의 전통산사'도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혜은)는 11월 26일 제4차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산사'와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을 선정했다.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총 7곳이 이름을 올린 '한국의 전통산사'는 등재 신청을 위해 2년 전부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구성돼

전통사찰 50곳의 사찰을 선별·답사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 이유로 "7개 사찰이 조선시대 이전 건립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화엄, 법상, 선종 등 다양한 불교사적 역사를 가졌다"며 "선교융합과 예불, 강학, 공동생활이 복합돼 불전, 강당, 승방이 공존하는 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측면으로도 "조선시대 국가적 역불정책 속에서 불교의 신앙적 전통을 유지·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한국의 전통산사" 등 해당 유산이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전통사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만큼 종단에서도 연구 및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 전통문화 유산들이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세민·정련·대원·지성·성파·성우 스님 대종사 품수

조계종 원로회의의 29일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44차 원로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행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는 세민, 정련, 대원, 지성, 성파, 성우스님 등 6명의 현직 원로의 원의 대종사 법계 품수심의를 만장

일치로 결의했다.

또 원로의원 스님들은 현행 법계법에 따라 대종사 법계 품수를 위해서는 중앙총회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각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심의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종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대종사 법계는 승단이 40년 이상된 비구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총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법계위원회가 법계심의를 개설하면 종정 진제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인준을 해준 뜻은 불교종흥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원력과 공심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지역포교위한 국민힐링 투어 시작

포교원, 12월 5일 명상과 결합한 투어 개최

조계종이 명상과 불교문화를 결합한 포교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국민힐링투어를 12월 5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국민힐링투어는 명상을 주제로 지역본사에서 진행된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사찰 명상센터나, 협회 차원에서 명상에 대한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먼저 공주 마곡사 권역인 대전세종충남권 행사에서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사무량심 명상법'과 마가 스님의 '행복명상'이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포교원은 "대전에서 진행되는 힐링투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국투어로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포교의 장으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대전에서 진행되는 힐링투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국투어로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포교의 장으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대전에서 진행되는 힐링투어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국투어로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포교의 장으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흥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 안동 광흥사서 국보급 고서 발견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 원소장지로 널리 알려진 안동 광흥사에서 국보급 문서 200여 점이 발견됐다.

안동 광흥사(주지 범종)는 최근 명부전 시왕상 복장에서 고려 말과 조선초에 간행된 고서 200여 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고문서는 1213년 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종경활요>와 1387년 고려 말기에 간행된 <대해보각산사서>(서장)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월인석보>와 <선종영가집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한글의 변천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광흥사와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11월 28일 시왕상 복장물을 불교중앙박물관에 이관했다.

노덕현 기자

## 아시아 지역 불교문화재 보존 어떻게

12월 6일, 문화재청 전문가 포럼 개최

문화재청이 아시아 불교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제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의 불교문화유산, 그 불국토를 보존하다(Asian Buddhist Heritage: Conserving the Sacred)'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아시아 지역의 불교문화유산 보존의 문제점과 보존정책 개선방안

을 논의할 이날 포럼에서는 로랜드 실바 박사를 비롯한 해외 학자 11명과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급 스님 등 국내학자 3명이 참석해 아시아 지역 불교문화재 보존을 논의한다.

문화재청은 2012년 국제문화재 보존복원센터(ICROM)와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기금을 지원해 아시아 지역 문화재 보존복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기금사업의 일환이다.

노덕현 기자

## 969호 INDEX

시방세계	5	종합	2·3	함께가요 강의실	8
조계종 봉사단 필리핀 재해 구호 현장		화마 휩쓴 낙산사 복원 3천일 회향 제16회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성료 봉은사 운영 백서 발간 의미 실천승가회, 시국선언 발표		수불 스님 디하노조노대 특강	
				학술	9
				한국불교학회 근대학자 조명한다	
				문화	20
				보로부두르 3D 다큐로 만난다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개편	
신행	6	불교 사회적 기업, 포럼 발족			



## "동국불교 꿈, 세계불교 터전 마련"

동국대 불교대 '비전 2020선포'

동국대 불교대학이 108주년인 2014년을 앞두고 비전2020을 선포하고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널리 알렸다.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이날 비전선포식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소속의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불교경영 최고지위과정, 석림회 등 관련 동문이 대거 참석해 하루동안 10여 여원을 모였다.

이날 모인 불교대학 동문들은 교가를 제창하며 2020년을 목표로 '동국불교센터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서원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 화엄의 세계

## 그구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教,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 회비 영가동참비: 1위당 미만원  
온산림 동참금: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십만원
- 문의처 통도사 중무소 ☎ 055)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 교통편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8:00~09:00)  
울산지역 공설운동장 (07:30) → 학생공원 (07:35) → 우정지하차도 (07:40) → 구고속터미널 (07:50) → 공업R (08:05) → 무거R (08:1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 입재 2013.12.03 (화)
- 회향 2013.12.31 (화)
- 장소 통도사 설법전